

전국 폭우피해 현황과 대책

7월 15~17일, 주말동안 강원과 서울·경기 등 중부지방에 집중적으로 폭우가 쏟아져 인명과 재산 손실 등 많은 피해가 났다. 서울 안양천 둑 일부가 무너져 영등포구 양평동 주민들이 긴급히 대피하는 등 곳곳에서 농경지와 주택, 도로가 물에 잠겼다.

특히 강원지역에선 산사태로 인명 피해가 컸다. 19일 4시 현재 전국에서 농경지 1만2,878ha가 침수·매몰되고 2,300여채의 주택이 파손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또 시설하우스와 과수 440여ha가 파손되거나 찢기고, 가축 94만마리가 폐사하는 등 피해가 천문학적으로 늘고 있다. 태풍 에위니아 상체를 채 복구하기도 전에 다시 장마 폭우가 닥쳐 앞친 데 덮친 격이 됐다.

15일부터 17일까지 경기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도내에서 모두 3천874ha의 농경지에 침수피해가 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17일 도(道)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현재 도내 농경지 침수피해면적은 논 3천646ha, 밭(시설채소 포함) 228ha 등 모두 3천874ha의 농경지가 침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해안과 한강하류에 위치한 김포시의 경우 고천면, 대곶면 등의 농경지 1천515ha가 침수되어 가장 피해가 컸고 여주군도 16일 오후 남한강이 범람위기에 놓이면서 논과 밭 435ha가 침수됐다.

또 임진강과 한탄강을 끼고 있는 파주시와 연천군에 각각 317ha, 252ha의 침수피해가 났고 청미천, 복하천 등이 흐르는 이천시에도 277ha의 침수피해가 났다.

이밖에 화성시 379ha, 양평군 215ha, 부천시 180ha 등의 침수피해가 발생했으며 특히 남양주시의 경우 진건뜰과 진접뜰의 시설채소용 비닐하우스 94ha 등 모두 100ha가 침수됐다.

그러나 이들 침수 농경지는 불어난 강물이 제때 빠지지 않아 퇴수면적은 전체 침수 농경지의 12%인 480ha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퇴수가 늦어지는 이유는 여주군의 경우 남한강 상류 충주댐의 방류가 계속되고 있고, 연천과 파주는 임진강과 한탄강의 수위가 북한 쪽에



서 불어난 물로 좀처럼 낮아지지 않기 때문이다.

또 서해안 저지대에 위치한 김포와 부천도 만조가 겹치고 한강 물의 수위가 여전하기 때문에 이날 자정을 전후해 퇴수될 것으로 경기도는 분석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시급히 물이 빠져야 농작물에 피해가 없을 텐데 댐 방류, 서해 만조 등과 겹쳐 강물의 수위가 좀처럼 낮아지지 않고 있다"며 "강물의 유속이나 서해 만조 등을 고려할 때 오늘 자정을 전후로 물이 빠질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집중호우로 침수된 논에서 벼 잎도열병, 벼멸구, 흰잎마름병 등 각종 병해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철저한 예찰활동과 함께 방제를 당부했다.

도 관계자는 "벼 잎도열병의 경우 전염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발병하면 주변 논까지 피해를 주고 쌀 수확량은 물론 품질까지 떨어뜨리므로 침수된 논에는 농약을 미리 뿌려주는 사전 예방작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부산지방기상청은 17일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내다봤지만 장마전선이 예상보다 더딘 속도로 내려와 남부지방은 폭우 영향권에 예상보다 늦게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때문에 영남에서는 대구 경북지방에 폭우피해가 집중됐고, 여기서 불어난 강물이 내려오면서 새벽부터 낙동강 하류지점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졌다.

낙동강홍수통제소는 이날 새벽 2시40분을 기해 경남 함안군 진동지점과, 밀양시 삼랑진지점, 부산시 북구 구포지점 등 3곳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했다.

통제소에 따르면 강물은 10분에 2~3센티미터의 속도로 빠르게 불어나고 있으며, 특히 이날부터 남부지방에 강한 비가 내리면서 낙동강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부산시 등 재해 대책 기관은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으며 피해예상지역에 대한안전점



검과 정기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강원 도내에서는 46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 규모가 늘고 있다.

그러나 18일 오전부터 폭우 피해가 컸던 평창과 정선 지역을 중심으로 또다시 국지성 호우가 내려 본격적인 수해복구 작업에 적지 않은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18일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현재 도내에서는 17명이 숨지고 29명이 실종되는 등 모두 46명의 인명피해가 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인제군 사망 8명 실종 24명, 평창군 사망 7명 실종 3명, 영월군 사망 2명, 원주시 횡성군 실종 각 1명 등이다.

당초 연락 두절로 집중호우 실종자 명단에 포함됐던 주민 3명이 장맛비가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귀가하거나 구조됐다.

많은 비가 내리면서 주택 2천62채가 침수 또는 파손되어 15개 시·군 1천598가구 3천679명의 이재민이 발생, 이 중 일부는 귀가했으나 나머지 7개 시·군 590가구 1천510명은 마을회관과 학교 등에서 지내고 있다.

집중폭우 피해로 두절된 도내 63곳의 주요 도로는 대부분 복구되어 정상 또는 부분 통제되고 있으나 인제~한계령~양양 44번 국도와 평창 진부~정선 부평 59번 국도는 등 4곳은 사흘째 전면

통제되고 있다.

또 지난 16일 오후 침수 피해로 정선 증산~구절리 정선선 열차운행이 이틀째 두절되고 있다.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상수도과 전기, 가스시설 복구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4 개 시군 26곳의 피해가 난 상수도 시설은 12 곳의 복구가 완료됐으며 정전사태가 난 11개 시군 3만 8천347가구 중 86%인 3만 3천여 가구의 전기가 복구됐다.

또 통신시설은 9천600여 회선 중 7천900여 회선이 복구됐고 가스시설도 대부분 복구가 마무리됐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집중폭우로 도로와 전기, 통신이 모두 끊긴 고립지역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평창 43곳, 인제 13곳, 정선 5곳, 양양 2곳 등 4개 시·군 63개 마을 7천700여 명의 주민들이 고립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54곳의 고립 지역에 헬기를 투입해 구호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9곳은 연락조차 되지않아 접근로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수해 이재민들에게 응급구호품과 급식, 급수 지원하는 한편 전염병 등 2차 피해예방을 위해 전염병관리기동반을 가동하고 방역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편 기상청은 18일 오전 6시 30분을 기해 동

해, 평창, 정선, 횡성, 홍천 등 5개 시군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한 가운데 30~60mm의 비가 더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발령지역은 전라남북도 등 호남 전 지역과 경북 북부, 강원 영서 일부 지방이다. 발령경보는 호우주의보다. 이 지역은 시간당 30밀리미터의 강한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다.

기상청은 현재 다소 발달한 비구름대가 호남 서해안을 따라 내륙으로 북동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에 따라 다소 강한 강수가 예상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당부다.

기상청은 태풍 빌리스가 소멸하긴 했지만 많은 양의 수증기를 우리나라로 내뿜었기 때문에 장마전선이 여전히 강한 세력을 갖고 있다면서 장마전선이 점차 활성화되면서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올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기상청은 또 충청 이남지방에 오전 중으로 호우특보가 발령될 가능성이 높으며 호우 예비특보를 발령했다.

이날 하루 동안 전라남북도와 경상남·북도는 40에서 90, 많게는 최고 150밀리미터 이상의 비가 오겠다. 충청과 강원 지방에는 20에서 60, 많게는 80밀리미터 이상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다. 서울 경기와 제주도도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된다.

이번 비는 7월 20일경까지 전국에 계속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동안 내린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진 상태기 때문에 적은 양의 비라도 2차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계속 필요한 상황이다.

갑작스런 비로 사랑하는 가족과 재산을 잃은 이재민들의 상심이 무척 클 것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재민에 대한 생필품 지원 등 구호조치뿐 아니라 피해를 복구하는 데 모든행정 역량을 동원하기 바란다.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행정당국의 신속한 지원과 별도로 이재민들에게는 이웃의 따



뜻한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다. 이것이야말로 삶의 의욕을 되찾도록 하는 원천이기 때문이다.

태풍이나 장마 등 자연재해를 인간의 힘으로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대비를 철저히 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서울 양평동 일대를 물바다로 만든 안양천 독 붕괴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독을 점검하는 것은 장마철에 대비해 행정기관에서 해야 할 일상적이면서도 중요한 일의 하나다. 더구나 지하철 공사 현장과 맞붙은 곳에서 독이 뚫렸더니 감독기관은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독이 유실된 뒤에도 누장대응해 피해를 키운 흔적이 역력하다. 철저히 따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최근 기상상황은 돌발적인 호우나 지역적인 강풍 등 예측이 어렵다. 기상변화로 말미암아 태풍의 위력도 커지고 있다. 상시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본은 재해예산의 90% 가량을 예방에 쓰고 있다고 한다. 재해 대비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때다.

정부 각 부처가 내놓고 있는 농가 지원대책

◆경영자금 지원

농림부는 피해 농가에 대해 농축산경영자금의 상환을 1~2년 연기하고, 연 3%의 이자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피해 조사가 끝나는 대로 농가당 500만~1,000만원의 재해대책 경영자금을 총50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일시적인 경영 위기에 빠진 농가에 대해서는 평가 절차를 거쳐 연리 3%에 3년 거치 7년 상환 조건으로 1,000억원 규모의 경영회생자금도 집행할 계획이다.

◆주택복구

건설교통부는 완파됐거나 유실된 주택은 가구

당 3,000만원을, 반파된 주택은 1,500만원씩을 지원한다.

지원금의 30%는 정부재정에서 무상지원, 60%는 저금리(연 3%)로 3년 거치 17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10%는 본인 부담 형태다. 이에 따라 전파된 주택의 경우 3,000만원의 30%인 900만원을 무상으로 받게 된다. 침수주택의 경우 가구당 60만원이 수리비 명목으로 국고 지원 된다.

◆위로금·세금감면 등

사망·실종자가 가구주인 경우 1,000만원, 가구원일 때는 500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집중호우로 재산피해액이 50만원 이상인 가구의 학생에게 수업료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해 줄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보험가입 이재민에 대해 해당 보험사가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인명피해의 경우 사실 확인 즉시 보험금을 선지급토록 했다. 또 피해자의 소득세와 법인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체납세금도 징수를 연기하기로 했다.

국세청도 오는 25일 납부기한인 부가가치세 신고를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3개월간 일괄 연장해 주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도 지자체별로 지방세 부과세 및 감면,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등의 지원책을 마련키로 했다.

◆지원 어떻게 받나

수해지역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거나 행정관서에서 발급하는 수해 피해 사실 확인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농협 등 해당 금융기관을 찾으면 된다. 복구비와 수리비 등은 중앙재난대책본부의 피해액 산정 및 복구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소방방재청과 해당 지자체에서 일괄 지원한다.